



대통령보다 높은 연합뉴스 ‘사장님’ 사규에조차 ‘사장’ 대신 ‘사장님’ 표현

노동조합은 지난 3월9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란 불공정보도 특보를 통해 정보보고를 존댓말로 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소개한 바 있다.

2009년 5~6월 모 부서장이 정보보고를 ‘윗분들’이 보고 있으므로 반말조가 아닌 경어체로 하라고 기사 작성창을 통해 부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지시를 박 사장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아래에서 알아서 한 것인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후진

적이고 권위주의적인지 보여주는,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다.

사규에 ‘사장’이 아닌 ‘사장님’의 표현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사규의 업무분장규칙 제4조는 기획조정실 비서팀의 업무를 ‘사장님 종합 일정 수립 및 관리업무’, ‘사장님 대내외 활동 보좌업무’, ‘사장님 지시사항 전달에 관한 업무’, ‘사장님 주재회의 주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박 사장 재임 시절인 2011년 1월26일 신설됐다. 그 이전엔 제·개정된 조항엔 모두 ‘사장’으로 표기됐지 ‘사장님’이라고 쓰지 않았다.

연합뉴스 역사에 없었던 비서팀을 만든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행태란 비판은 접어두고 사규에 어떻게 ‘사장님’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따져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법령에는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각하’가 아닌 ‘대통령’으로 표기한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란 말밖에 사규에 ‘사장님’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집어넣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누가 이런 황당한 조항을 만들었을까. 규칙과 내규의 제정·개폐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박 사장이 자신을 ‘사장님’으로 표현한 사규 개정을 결재

했다는 얘기다.

설령 실무진에서 ‘사장님’으로 안을 올렸더라도 사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규에 이런 낯뜨거운 표현이 들어갈 수 없다.

박 사장 시절 연합뉴스의 대다수 사원들은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상명하복식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에 진저리를 쳤다. 노조가 23년 만의 파업에 들어가면서 내건 주요 목표중 하나가 ‘사내 민주화’였다. 사규에서조차 사장이 ‘사장님’으로 존재하는 한 사장과 사원들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박 사장, 출근 엘리베이터 바꾼 까닭은?

출근 저지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정찬 사장이 31일엔 노조의 허를 찌르는 수를 선보였다.

박 사장은 오전 9시29분 본사 7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은 사장실 출입문과 가장 가까워 그동안 애용하던 ‘C’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조합원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C’ 엘리베이터와 사장실 출입구 사이에 스크럼을 짜고 대기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그러나 조합원 대오 뒤편인 ‘D’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서 조합원들을 미묘한 웃음을 띤 채 훑어보곤 눈 깜짝할 사이 되돌아갔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한 조합원이 “어디 도망가세요”라고 연거푸 외쳤지만 박 사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박 사장이 출근 엘리베이터를 바꾼 것을 두고 조합원들과 카메라 앞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공병설 위원장은 이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측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공 위원장은 “박 사장 측은 ‘협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상 내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자’고 노조에 부탁해놓고는 자신들이 협상 내용을 흘려서 일부에서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린 박 사장 측의 이런 태도, 불리하면 대화를 중단하는 행태가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중적인 행태도 문제 삼았다.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했을 때는 “노사간 내부문제”라며 수수방관 했다가 이제 와서 박 사장 측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공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는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파업이 80일이

다 돼가는 지금에야 박 사장에게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작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찬 사장은 31일 자신이 애용하던 ‘C’ 엘리베이터가 아닌 노조 대오 뒤편인 ‘D’로 내렸다가 되돌아갔다. ‘C’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던 연합뉴스 조합원 박 사장의 기습 출현과 퇴장을 망연자실 쳐다 볼 수밖에 없었다.

<7층 사장실 앞 조합원 풍경>

※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25일부터 박정찬 사장의 출근을 저지시킨 뒤 일과 시간 내내 사장실 앞을 지키면서 다양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쟁대위에 따로 파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아닌 요구'를 하고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망중환을 즐기고 있다. 노보팀은 노조의 새로운 집결지가 된 본사 7층 사장실 앞 조합원들의 모습을 관찰해봤다.

▲명당을 잡아라

0..허허벌판이었던 서관 8층과 달리 7층은 벽과 문, 가구 등을 갖추고 있어 조합원들의 개성과 사정에 맞는 다양한 '명당'을 제공하고 있다.

7층 집회장소는 크게 엘리베이터 앞, 기획조정실 앞 복도, 대회의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 구역에서는 사장실로 통하는 유리문 앞이 명당으로 꼽힌다. 유리문 앞은 사장과 마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장과 책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자리다. 하지만 벽에 등을 기댈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밀려들어와 '오아시스'와 같다.

복도는 친한 조합원들이나 친분을 쌓는 조합원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기 딱 좋다. 그러나 간식이나 도시락을 먹을 때 음식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채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대회의실은 구석구석 명당이 숨어 있다. 책을 읽기에 적합한 탁자는 단연 인기 장소.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드러누울 수 있는 장소도 찾아보면 많다. 병풍 뒤, 단상 뒤, 기동 뒤는 사장 출근 시간에 맞춰 나오느라 아침잠을 설친 조합원들의 취침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연합 사랑방이 된 대회의실

0..사장실 앞 농성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7층 대회의실이 다용도 공간으로 조합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매일 오전 9~10시께 박 사장의 출근 저지가 끝나면 조합원들은 대회의실로 삼삼오오 모여든다. 이른바 '연합독서실'인 이곳에서 조합원들은 가방에 넣어온 책을 꺼내들고 책상에 모여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다.

갈색 가죽으로 된 의자 26개는 몇 분만에 금방 동나기 마련이다. 간발의 차로 자리를 얻지 못한 조합원들은 창가에 모여앉는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특히 경쟁이 치열하다.

점심때 대회의실은 도시락을 올려놓고 밥을 먹는 식당으로 변한다. 오후에는 허리가 아픈 조합원들이 바닥에 등을 붙이고 휴식을 취하는 '수면실'이 되기도 한다.

또 이곳은 조합원들은 윗몸일으키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공간으로 활용된다.

▲사장실 앞 조합원은 열독 중

0..78일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독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사장실 앞 농성이 이어지면서 책을 서로 돌려보는 훈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보도국에 파견된 이동철 조합원은 파업 기간에 책은 무려 34권이나 읽었다. '독서광'인 이 조합원은 보도국 파견 이후 책을 전혀 읽지 못하다가 1년 만에 책을 잡았다고 한다.

이 조합원은 "파업을 하다 보니 '전쟁의 기술', '권력의 법칙', '감성의 리더십' 등의 책을 주로 읽게 된다"며 "청계전 현책방 거리를 애용하면 새것이나 다름없는 책을 1천~3천원 정도로 살 수 있다"고 귀띔했다.

사회부 이용 조합원도 파업 이후 약 20권의 책을 읽었다. 후배에게 빌린 장편 소설 '은교'를 읽고 있던 이 조합원은 "평소에는 여유가 없어 거의 책을 읽지 못했는데 파업하고 나서 책을 많이 읽었다"며 "책을 잡은 건 거의 10년만"이라고 겸연쩍어했다.

그는 이어 "서점에 가더라도 비싸서 책을 마음대로 사기가 어렵다"며 "쟁대위에서 조합원끼리 책을 돌려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옷차림 딜레마

0..'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 있기에 편하면서 시원한 옷'. 7층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옷차림이다. 그러나 그런 옷을 찾기가 은근히 어렵다고 조합원들은 토로한다.

영문경제뉴스부의 김보람 조합원은 "바닥에 앉아 있으려면 긴 바지가 좋은데, 날도 더워지고 7층은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 평소엔 잘 입지 않는 반바지를 어쩔 수 없이 꺼내 입었다"며 "선후배들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맨다리를 드러내기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대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의 김수진 조합원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쪼그리고 앉기가 너무 불편해 최근 운동화를 구입했다"며 "동기들 사이에서 '파업 운동화'가 인기"라고 말했다.

7층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옷 걱정이 없어졌다는 조합원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노조 단체티를 입었다는 국제뉴스부의 김세진 조합원은 "보통 셔츠에 수트를 입고 다녀 마땅한 집회 복장이 없었는데 때마침 편한 반팔 티셔츠가 생겨서 매우 만족한다"며 기뻐했다.

정치부 강영두 조합원은 노조 티셔츠를 입고 "오랜만에 새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두근두근'출석 체크

0..'자 여러분, 출석체크합니다"

매일 오후 5시께가 되면 사장실 앞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출석체크' 시간이 돌아온 것.

'출석 체크에 임하는 조합원의 자세'는 각양각색이다. 사자후에 가까운 대답으로 동료에게 기를 붙여넣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음이탈'로 의도치 않은 웃음을 선사하는 조합원도 있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운 조합원의 선·후배, 동기들이 전하는 깨알같은 '불참사유'를 듣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출석체크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 조합원은 "출석 체크 때 부서 출석률이 낮으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참여를 독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극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출석 체크 덕에 이름만 알았던 조합원들의 얼굴을 많이 알게됐다"면서 "집회 참여도 독려하고 조합원 간 친밀감도 높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출석체크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출석 체크에 반대한다는 한 조합원은 "업무 특성상 파업 참여율이 낮은 부서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집회에 못 나오는 조합원도 있는데 출석 여부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출석 체크보다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쟁대위 '오늘은 뭘 먹이지...'

0..하루 일정이 사장실 앞 농성으로 채워지면서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 쟁대위의 고민도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메뉴가 햄버거, 김밥, 도시락 등으로 폭이 좁다 보니 매일 아침 '오늘은 뭘 먹나'를 놓고 고심이 크다. 특히 노조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이용석 총무부장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백나리 여성부장은 "멀치김밥이 나오면 짜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가져가는 조합원들은 정말 고맙다"며 "한정된 메뉴임에도 맛있게 먹어주는 조합원들에게 늘 감사한다"고 말했다.